

아시아의 보스턴 꿈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앞두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와의 투자유치와 협력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0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한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산업을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보고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아시아의 보스턴' 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일단 전북자치도의 계획은 전주와 익산, 정읍 등 3개 지자체를 벨트(1,378만㎡ 규모/여의도 4.7배 규모)로 묶어 정부에 바이오특화단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 벨트안에서 전주쪽은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 산업화 촉진지구로,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바이오 생산지구로,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 각각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 지정전까지 바이오기업 유치와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대병원·바이오협회와 '집합형 바이오특화단지 전략 수립에 나서고, 전주시·익산시·정읍시를 비롯한 전북테크노파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도내 혁신기관들과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는 등 탄탄한 준비를 펼친 전북자치도는 올해 들어서도 괄목할 성과로 특화단지 유치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들어 넥스트앤바이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주)레드진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첨단 의약품 제조 JBK LAB, 인핸스바이오 기업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2,219억원)를 이뤄내는 등 바이오산업의 집적

29일 정부 공모 접수 앞두고 바이오 기업 유치 등 공들여 전주·익산·정읍 등 3곳 벨트로 묶어 특화단지 제안

전북, 연구개발 사업화 창업촉진 등에 유리해 27곳 국공립 연구기관 소재 네트워크 인프라 풍부

검토·평가·심의 거쳐 올 상반기 중에 발표



지 조성을 위한 의견을 넓혀가고 있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오가노이드 바이오 플랫폼으로 글로벌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레드진은 유전자 교정 및 줄기세포 배양기술로 인공혈액을 개발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기술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조기 임상에 진입하고 다양한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JBK LAB은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기업이고, 인핸스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DNA의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성분을 치료제로 개발한 전문 업체다.

전북자치도는 또한 국제적인 산학협력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일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킬러규제 완화, 종합병원(MGH) 의공학과

나노메디슨 연구소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GH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내 산재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아 다방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앞서 19일 정읍에 집적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일 재생의료진흥재단과, 22일 법무처 재생의료진흥재단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첨단 재생의료분야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되었다.

전북지역은 연구개발특구,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및 창업촉진에 유리한 강점이 있으며, 27개소의 국공립 연구기관이 소재해 풍부한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됐다.

여기에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연계하고 풍부한 그린 바이오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레드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된 지역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는 오는 29일 접수를 시작으로 검토·평가와 심의·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전북의 강점을 살린 전략으로 첨단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따른 전북경제 파급 효과

새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지면 2029년경에는 17만개 이상의 누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누적 생산액도 46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전망은 산업부의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준비 중인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R&D)과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기업유치, 창업지원 등

'생산액 1조3607억원 · 고용 창출 1만960명'

전북연구원 '5개년간 누적 생산액 46조3397억 · 고용 17만2208명 등 예상'

에 4,790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확보한다. 여기에 특화단지 연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651억원이 지원되는 등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6,4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치도는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넥스트앤바이오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등 선도기업 2곳을 포함해 JBK랩, 레드진, 인핸스바이오 등 도와 투자협약을 맺거나 예정인 기업이 13개사(社)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투자 예정액은 4,8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연구원은 정부와 도의 예산지원과 기업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액 1조 3,607억원, 1만960명의 고용 창출을 예측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바이오특화단지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2025년부터 5년 후인 2029년까지 정부와 도의 투자지원과 기업들의 예상 매출액은 총 36조5,499억원에 달할 것으

로 전망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연구원은 5개년간 전북의 누적 생산액이 46조3,397억원, 부가가치 17조 3,768억원, 고용 17만2,208명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2029년까지 0.7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북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델(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활용한 것으로 이 모델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대표적 모형으로 꼽힌다. /김재훈 기자

